

2019년 5월 18일 석가탄신일(Vesak) 데이

온 세상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들께 평화를 기원합니다!

빛으로 충만한 석가 탄신일(Vesak)에, 가톨릭교회의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도 함께 고타마 싯다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¹

고타마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에 이르는 길,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보살들과 불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인류를 드높이고 모든 중생을 위해 힘써 온 일들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제 16회 UN 베삭 데이와 2019년 5월 12일에서 14일에 걸쳐 베트남 하남(Hà Nam) 지방에서 ‘친환경 사회를 위한 글로벌 지도력과 공동 책임에 대한 불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불교 모임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 공적 공간, 성스러운 공간, 가정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며 조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많은 도전들에 맞서는 불교의 비폭력에 동조합니다.

우리 또한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평화의 전파자인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형제로서 이런 인류 공동의 가치들을 지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가 애정어린 자비를 촉진시키고,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하며, 우리 인류 공동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존재들이 고통, 무지, 그리고 두려움의 그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오르듯이, 여러분의 프란치스코 형제들은, 모든 존재가 자비, 지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한 빛 안에서 살기를 기원하는 여러분의 기원에 함께 합니다.

형제적 애정을 담아 깊이 고개 숙이며, 여러분에게 평화와 선을 기원합니다.

프란치스코회(작은형제회)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모임 담당

¹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음력 4월 15일 베삭 데이에 부처님의 탄신, 깨달음, 열반을 함께 기념합니다. 중국, 한국, 대만, 홍콩에서는 음력 4월 8일에, 일본에서는 양력 4월 8일에 석가탄신일을 기념합니다.